



時計塔 SIGETOP



2021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8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희망적인 새해를 기대하며

안우성, 미주동창회장

존경하는 미주서울의대 동창회 동문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일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밤 낮으로 수고가 많은 동문들과 모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학수고대하던 백신의 공급이 하루빨리 제공이 되어서 전세(戰勢)가 바뀌는 희망적인 새해를 접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변종 된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 번진 듯,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로도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 년간 COVID-19으로 미국에서만 40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우리 동문들 중에도 자신이나 가족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에 개최하려던 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도 취소되었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예전과 같이 개최 희망을 가져 봅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 상황이 해소되고 개인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되는 이 상황을 이겨내면,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든 동문들께서는 모쪼록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고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2021년 황소의 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유례없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보로 동문 전체께 소식을 전하시는 편집위원회 모든 임원과 서윤석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website에 빠른 update를 해 주시는 주광국 선배님과 송경민 후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갇혀 지내는 시기에 여러 동창들에게 시계탑과 website는 유익한 소식으로 용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그 훌륭한 리더십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삽화 : 김명원(68) 동문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윤석, 시계탑 편집장

힘들었던 2020년이 결국 지나가고 2021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리던 희망希冀의 불빛을 향하여 깊고 쓸쓸했던 눈에서 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세균이라고 말씀하신 미생물학과 기용숙 교수님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예견대로 참으로 무섭고 어두운 긴 비극을 지금 우리 인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계탑에는 그동안 이 질병으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 불행하게도 떠나신 분들이나 가족의 부고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 중에는 영결식도 잘못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 동창회로 장학금과 기부금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송구스럽고 숙연해집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신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37대 미주학술대회에 대하여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질병 담당국에서는 연휴가 지나가는 이번 1월 한 달이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비록 백신이 나왔지만 사람들의 모임이 언제가 안전하고 가능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금년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할 때를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만 학회 일정의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남가주의 안우성 회장단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이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모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추후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필수로 침울하고 답답한 아픈 이야기는 신지 않도록 편집했습니다.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으로 투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계탑을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의 성원으로 정직성(Integrity)과 인류애(Humanity)가 바탕이 된 47년의 전통을 이어 중단이 없이 예정대로 발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기다리시는 것이 시계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Website(주광국, 남명호, 송경민 담당)도 시계탑과 더불어 모든 동문들의, 특히 젊은 세대 간의 소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계탑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동창회 사무실, 인쇄소와 부드럽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신문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의 비탈에서 차츰 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문들께서도 2021년에는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견뎌오신 인내심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시고 건강을 유지하시어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SNUCMAA 2020-2021 COMMITTEE CHAIRS

Finance	김성환(71)	sunghwkim@gmail.com	Nominating	이성길(71)	sgltiger@gmail.com
Scholarship chair	강민중(91)	min-jong.kang@yale.edu	Silver Project	임종식(57)	jrhim@verizon.net
Associate chair	이선희(81)	leesteinway@gmail.com	Office Management	서귀숙(84)	catherinegs@gmail.com
Fund Raising	최광휘(76)	akchoi52@gmail.com	Charity	최영자(66)	choikim@gmail.com
Scholarship Fund	이명희(66)	DocM4@aol.com	Website	주광국(68)	kwangjoo@hotmail.com
Research & Fellowship	조세진(71)	cho3gene@gmail.com	Associate Website	송경민(09)	minnie0802@gmail.com
Green Project	임경빈(99)	kbinim@gmail.com	Convention Chair	서윤석(68)	younseokseo2004@gmail.com
Publication	서윤석(68)	younseokseo2004@gmail.com	Scientific Chair	박종철(99)	jpark73@mgh.harvard.edu
By Laws	문대옥(73)	dmoon625@hotmail.com	Scientific Co-Chair	신규호(68)	khshin59@gmail.com
Advisory & Exchange	이만택(58)	mmtlee@hotmail.com	Non-CME Chair	김영애 여사	yakim423@gmail.com

BOARD OF DIRECTORS

2019-2022	2020-2023	2021-2024
한기현(63)	김태웅(63)	이만택(58)
kihan00@yahoo.com	twjskim@earthlink.net	mmtlee@hotmail.com
권정덕(64)	김성환(71)	채규철(59)
cstephankwon@yahoo.com	sunghwkim@gmail.com	kcchaemd@aol.com
최순채(66)	김일영(71)	johnjchoimd@yahoo.com
soonchoi@aol.com	ilykim@gmail.com	sun.h.huh@gmail.com
서인석(73)	조세진(71)	허선행(64)
ins9002@gmail.com	cho3gene@gmail.com	wansupshim@gmail.com
한민우(75)	강창홍(71)	심완섭(73)
minwoohan51@gmail.com	ppkng@hotmail.com	wansupshim@gmail.com
한승신(76)	이원택(71)	남명호(81)
hahns@upstate.edu	wonlee0120@gmail.com	lucy.nam@inova.org
catherinegs@gmail.com	byoungscho@hotmail.com	seonkyu.lee@gmail.com
drshin4u@hotmail.com	yongkyookoh@gmail.com	min-jong.kang@yale.edu
신원석(88)	고용규(73)	e.angela.park@gmail.com
jpark73@mgh.harvard.edu	전경배(75)	
박종철(99)	김동훈(77)	
	dhkim99@yahoo.com	



오유정 동문

(2017, Pediatrics)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NY



1. 어떤 계기로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제가 추구하는 공부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보다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환자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족한 점을 혼내기보다는 부드럽게 격려해 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일과를 마친 후에는 온전한 저만의 시간 내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살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수련 기간에도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레지던트 매치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현재 일하는 병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매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STEP 2CS)만 학생 때 해놓고 졸업 후부터 본격적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하였는데, 밤에는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으로 일하고 낮에는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여건상 1년 정도 손을 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기도 했지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매년 약 50%의 한국 선생님들만 매치에 성공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안에 들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현재 병원에 매치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병원을 택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서 일하시는 서인석 선배님(73졸) 덕분입니다. 본과 4학년 때 미

국에서 클릭심을 하면서 선배님을 뵈게 되었는데, 이 병원의 소아과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며 한국계 소아과 레지던트와도 연결해 주시는 등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알수록 프로그램 분위기가 매우 마음에 들어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도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화목한 프로그램 분위기입니다.

3. 소아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가 7남매 중 장녀이신데, 예전에 조카들을 많이 돌보아 주셨어요. 따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사촌동생들을 돌보는 데 익숙해지고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들어와서도 어느 과를 가든 세부 전공은 소아과 하겠다고 생각했었지요. 매치에 참여하며 몇몇 과를 생각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도전할 수 있는 과 중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과는 소아과이기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수련 받고 있습니다.

4. 병원에서의 일과는? 수련 6개월차로서 느끼는 점은?

각 로테이션, 연차 별로 근무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인턴(1년차) 근무시간을 소개하자면 병동에서는 7am-6:30pm 혹은 6pm-7:30am 일하고,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8am-8pm 혹은 8pm-8am 근무를 합니다. 월-금에는 아침에 한 시간 반씩 교육이 있는데, 어텐딩 강의 45분과 레지던트 발표 45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당직을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온전한 연속 24시간 비번은 보장이 되고, 보통 일주일에 하루 반 내지 이틀을 쉬게 됩니다. 저는 퇴근 후 대개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고, 그날 기분에 따라 영어 공부를 위해 Netflix나 Hulu를 통해 미드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소아과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밥상은 H-mart에서 파는 반찬을 결들이거나 '비비고'같은 반조리 제품을 이용해서 차려내곤 하는데 꽤 괜찮습니다.

수련 6개월차로서 느끼는 점은 레지던트 선배들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진료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처치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까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특히나 3년차들은 어텐딩 못지않은 교육을 해줍니다. 저도 당장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후배들을 교육해 줄 수 있으려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5. 미국 의료 현장에서 코비드 판데믹을 어떻게 통과하고 계신지?

저는 소아과이기 때문에 심각한 코비드 환자를 담당할 적은 없습니다만, 코비드 양성 환자를 종종 맡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코비드 양성이 확인된 경우였고,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C,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의심되어 입원한 환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판데믹으로 인해 저희 프로그램뿐만 전국적으로 소아과에 내원하는 일반 환자 수가 매우 줄었는데, 다행히도 수련 경험이 부족할 걱정은 없습니다. 늘어난 여유 시간만큼 선배들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고 어텐딩들께서도 자주 병동에 들려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원하던 '소수의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6. 미국살이가 어떤가요? 뉴욕-브루클린은 어떤 곳으로 다가오는지요?

미국에 코비드가 한창 심해서 문을 연 곳이 없던 때에 이곳에 도착했기에 뉴욕을 즐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서류 작업을 위해 공무원들을 많이 접했는데,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은 미국 정부 직원들 중 더욱 불친절하다는 뉴욕 정부 직원들을 상대하다 보니 처음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미국 왔나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며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얼마 전 식당과 미술관 등이 잠시 문을 열었을 때 레지던트 동기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전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문화의 음식들을 돌아가면서 함께 즐겼던 것이 특히 좋았어요. 앞으로 코비드가 잠잠해지고 도시가 다시 깨어나면 동기들과 함께 제대로 뉴욕을 즐길 계획입니다.

7. 휴일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동기 레지던트들과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 연차는 10명인데, 다들 벌써 친해져서 자주 모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전체가 모일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주말이나 휴일에 모여서 어울립니다. 최근에는 한 동기의 집에 모여 크리스마스 쿠키를 굽고 아이싱으로 장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서 일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위해 병원으로 가서 각 유닛을 돌아다니며 쿠키를 나누어주었습니다.

8. 미국에서 여행 가고 싶은 곳은?

Arkansas! 학부생 때 University of Arkansas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1년간 머물렀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무척 좋아서 미국에 정착한다면 단연코 알칸사스에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현지 가정과 외국인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침례교 목사님 가족과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네 푸근한 정과 인심을 남부 사람들에게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도 초대받아서 가고, 사슴 사냥할 때도 따라가고, 함께 지역 축제도 즐기

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목사님 덕에 아이들이 그때 아홉 살, 일곱 살이었는데, 무척 귀여웠지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9.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은?

부모님과 하루 두 번 출근길과 퇴근길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Skype으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친한 친구들이 거의 다 미국에 있어서 생활하는 시간대가 거의 같아 그 친구들과는 무리없이 카톡으로 자주 수다를 떨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는 카톡 또는 아이폰의 i-message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바로바로 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한 두 개 씩의 메시지는 꾸준히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10. 새해 소망이나 계획은? USMLE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 말씀해주신다면?

새해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은 인턴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서 내년에 들어올 신입 전공의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2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익히느라 초반에 동기들보다 뒤처진다 싶은 느낌이 들어 몇몇 어텐딩께 도움을 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들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기적으로 그분들과 만나며 제 발전 상황을 체크 받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발전에도 항상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는 휴가 때 꼭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휴가를 1년에 2주씩 두 번 쓸 수 있는데, 올해에는 코비드 때문에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 격리 2주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되기에 이번 휴가 때에는 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한국이 몹시 그리운데, 내년에는 꼭 가서 정들었던 여러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한 동네 한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배인 동네 곳곳이 특히 그리웁습니다.

USMLE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흔들릴 때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십시오.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도전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혹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다면 tn10933@snu.ac.kr 로 메일 주세요.

(백은경 편집위원)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 염극용(60) 동문의 따님(Ellis Yum Bai)이 쓴 추모사

Our beloved father, Keuk Yong Yum, passed peacefully at his home in Fort Lee, NJ, on December 2, 2020, encircled by his wife, Young Hee Shin, and his four children, Elli, Mimi, Samuel and Helen. We were holding his hands in prayer as his spirit gently departed this life. He was born on February 20, 1934 in the town of Hongwon in the province of Hamgyungnamdo in North Korea and emigrated to Seoul at the age of 11, where he attended Kyunggi High School and then the College of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ing in 1960. Following that, he served in the Korean Navy for four years. He then married Young Hee Shin in 1963,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5 where he completed a surgical residency at Lankenau Hospital in Philadelphia, and joined the Mainline Surgeons where he served with great distinction for 30 years. He retired from surgery in 2001 then founded an advanced wound care clinic. Not only was he a great physician to the body but he served the spirit by co-founding th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in 1968. He had a great heart for missions, and served as a medical missionary to regions such as Kenya, Indonesia, Nepal, Mexico, Manchuria and Kazakhstan. After residing in Radnor for 50 years, he moved to Fort Lee to be closer to his children and joined Bethany Church. At his core, he was a devoted family man, imparting words of wisdom with great love and modeling integrity daily to his four children and his three son-in-laws, John Bai, Kent Min and Sung Rno, and doting affectionately upon each

of his eight grandchildren, Zachry, Calla, Lucie, Josie, Alex, Liana, Kyler and Emmy. Though he struggled with the harsh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in his final years, his courage, faith, and love were constant. Though we ache for our loss, we rejoice knowing he is with Our Lord and walking with His King.

Ellis Yum Bai

고 이상설(58) 동문의 따님이 쓴 추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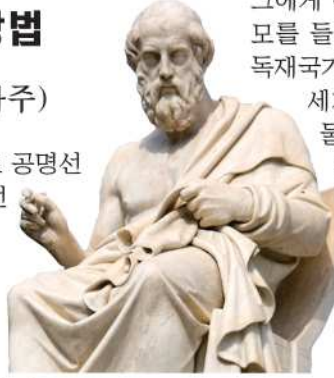
Sang Seol Rhee 1933 ~ 2020
Remembering My Father



How will I remember the most important man in my life? To me, he was like the heroes in the classic movies he loved to watch strong, quiet, courageous, and loyal. He lived by a code of honor that was shaped by his experiences living under Japanese occupation; surviving the Korean War; emigrating to the U.S.; building a career and a family. He had a doctor's brain and an artist's soul. He had the hands of a surgeon, but the touch of a fly fisherman. His eyes twinkled with mischief and laughter. His love came in many forms joyfully playing with his granddaughters; tenderly holding my mother's hand on their 50th anniversary; heartily enjoying her food at every meal; proudly attending each football game, musical performance, graduation, wedding; unwaveringly supporting all of us in good times and bad. How will I remember my father? As the greatest hero a child could ever have.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민주주의 플라톤의 다섯 가지 통치 방법

온기철(71, 남가주)



선거 닷새만에 AP는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선언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편 투표를 많이 하여 개표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뜻밖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지난 4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

좀 지각 있는 사람이 보면 트럼프는 대통령의 임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거의 반은 그가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다. 재선에 실패했지만 그는 48%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대통령 당선 전의 행적과 4년 동안의 업무 수행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 실패 등을 고려하면 30%의 지지표도 과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16년 대선 동안에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클린턴 선거본부 컴퓨터를 해킹했다. 선거 일주전에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는 민주당이 비밀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폭로했다. 선거일에 가까워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특검은 그가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부동산 재벌로 명성을 떨쳤지만 과산을 6번이나 했다.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서 국세청에는 사업이 잘 안되어 손해 보는 세무 보고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사업이 잘되어 이득을 본 것처럼 만든 장부를 들고 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이고, 독일은행과 관련된 허위 장부건이 뉴욕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러시아 오리카크들은 검은 돈을 독일은행에 보내서 세탁했고 독일은행은 이 돈을 트럼프에게 빌려주었다. 트럼프는 섹스 영화 여배우와 정사를 했다.

2016년 선거운동 동안에 입을 막기 위해서 여배우에게 돈을 주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두 번이나 이혼했다. 성추행 문제로 26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그가 관련된 소송은 무려 4000건이나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성추행, 법을 무시하는 언행, 충동적인 결정 등에 대한 수백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그가 백악관을 나서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법정과 감옥일 것이다. 아마 그는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재산의 대부분을 벌금, 변호사비,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써야 할 것이다. 그가 만약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면 길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유권자들은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는다. 미국

의 선거는 그야말로 공명선거이다. 트럼프는 선거가 완전한 사기라고 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다섯 가지의 통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는 Aristocracy (귀족정치)라고 했다. 현명한 왕이 학식 높은 소수의 귀족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이다. 이 통치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Timocracy (명예 지상주의 정치)로 후퇴한다.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 전쟁을 좋아하는 왕으로 바뀐 정부 형태이다. 승전과 영토 확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국가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통치 형태이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Oligarchy (과두정치)라는 더 나쁜 통치 방법이 나타난다. 대 부호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이다. 통치자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백성들은 정부에 반항한다. 다수의 없는 자들은 소수의 있는 자들을 권력에서 축출한다. 결국 백성들이 통치하는 정부 형태가 탄생한다.

Democracy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백성들은 자유를 만끽한다. 백성들은 아무한테도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기가 힘들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배자가 되는 데 그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은 그들이 부호 (Oligach)라고 생각하고 저항한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나선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 약속을 하여 백성들의 호감을 산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지배자를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했다고 백성들에게 공표한다. 그는 사실상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분간 숨긴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 문제를 일으켜 백성들에

게 자기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필요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백성들이 그에게 반발하는 순간 그는 독재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가장 나쁜 통치 형태인 독재국가의 출현이다.

세계 2대 강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둘은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 다른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경쟁의 결말은 어떤 형태의 통치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말해줄 것이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일삼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현상은 플라톤의 5단계 정부형태 퇴보 과정에 비추어 보면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그가 미국 국민 다수를 거짓말로 속이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주었다. 만약 그의 거짓말이 먹혀서 재선에 성공했다면 다음에 다가올 정부 형태는 독재였을 지도 모른다.

중국의 통치 형태는 귀족정치와 흡사하다. 결코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옛날 마오쩌둥 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공산당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공산당 지도층은 플라톤 시대의 귀족 계급에 해당한다. 주석 시진핑은 당시의 현명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제국들은 오랫동안 귀족정치, 명예 지상주의 정치, 과두정치, 민주주의, 독재 정치의 형태를 반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19세기를 근대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제국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었다. 2500년 전 현자 플라톤은 인류가 미래에 겪을 변화를 대충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왕정 (귀족정치), 제국주의 (명예 지상주의 정치),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가의 자본 독점 (과두정치)는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둘로 갈라진다.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전자는 일인 독재로 전락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가 일인 독재로 변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등소평의 등장은 중국이 독재국가에서 귀족정치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강한 나라가 된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1

의 초강대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제 확장으로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는 모양 세이다. 명예 지상주의의 면모가 분명하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로 천만장자를 양산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과두정치의 양상이다. 다수인 못 가진 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다음은 혼란스러운 민주주의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미국 민주주의의 향방이기도 하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좀 더 가진 자"가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꾸기 힘든 기득권 층이 형성되었다. 못 가진 자들의 신분 상승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연히 다수가 소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갈 소지가 보인다.

미국 사람들은 이민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 미국은 못 사는 나라에 경제원조도 해 주었고 약한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미국 사람의 대명사는 중산층 백인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하나 둘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 중국, 인도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의 직장이 없어졌다. 불쌍하다고 도와주었던 이민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대학 졸업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하이테크 직장만 생겼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백인들은 저임금의 서비스업 직장으로 밀려났다.

이민자의 자제들은 대학교육을 받아서 임금 높은 직장을 차지했다. 관대했던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외국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고 외국 유학생에게 미국에서 살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고 나토와 한국 등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시골에 사는 백인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집단으로 변해가는 동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을 이끌어 가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물론 이 중 다수가 백인이지만 많은 유색 인종이 활동하고 있다.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의 지도자 들이다. 시골에 사는 백인들은 이들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시골 백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케냐 이민자의 아들,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떠들어 대면서 대통령의 꿈을 현실에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은 좀 무식하고 못 사는 백인과 유색하고 잘 사는 도시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백인 유권자가 대부분인 주 출신 상원 의원들의 방해로 오바마는 그가 원하는 정책을 거의 수행할 수가 없었다.

미국은 백인 신교도들이 만든 나라이다. 백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들의 기득권은 대를 이어서 내려왔고 당연한 <다음면에>



사진: 서윤석(68) - 2021년 새해 아침

예정대로 원고정리가 끝나고 전화로 편집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지난 3개월간은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동문들께 감사를 드린다. 스포츠, 음악, 미술, 문학, 역사 그리고 인종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 해박한 의견과 작품과 좋은 글을 보내주셨다.

끔찍했던 2020년의 쥐의 삽화를 보다가 학수고대하던 2021년, 신축년이 되어 뿔이 날카로운 소의 삽화를 그려보면 김명원 화백의 예술성에 감사한다. 명암이 다른 두 면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아무쪼록 밝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완전무장을 하고 환자를 돌보는 화타 같은 名醫, 노영일 화백의 상징적인 그림과 병원 복장을 독자들은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다. 나두섭 편집위원님이 매호마다 빠짐 없이 전문적인 예술 사진과 시, 수필작품을 보내오심에 감사한다. 온기철 동문의 우리나라 근대 역사 연재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호에는 소용돌이 속의 미국 정치 현실과 함께 2,500년 전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이 예견한 내용을 소개한다. 독자들께서 찬반에 관계없이 참고로 하시기 바란다.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진을 더 크게 하지 못하는 점

2021년 1월 시계탑 편집회 초록

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난 1년간 전화와 이메일로만 그런대로 편집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으로 하는 장점도 있었으나 백신의 등장으로 몇 달 내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차츰 보이기 시작해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진행할 것이다. 그동안 박은경, 서귀숙 편집위원들은 의료현장에서 몹시 바쁠 터인데도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거듭 감사한다. 아마도 7월 호부터는 직접 대면하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원고들 중에서 표준 철자법이나 글의 형식과 내용이 편집 기준에 어긋나는 원고들은 편집회를 통과할 수 없음을 기고자 여러분들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수시로 들어오는 많은 원고들을 우선 편집장과 황창근 사장이 교정과 정리를 끝낸 후, 서귀숙 편집위원의 날카로운 교정을 다시 거쳐서 가편집에 들어간다. 가편집된 파일들은 모든 편집위원이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고, 모두의 의견을 묻고, 편집장의 최종 리뷰를 거친 후 인쇄하여 발송을 하게 된다. 오늘의 편집회는 2021년 1월 9일 오후 1시 45분에 마쳤다. 다음 편집회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오후(동부시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 글: 편집장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는 밤

이 권 일 (68, 남가주)

아무리 사계절이 없다는 남가주에서 살고 있지만 오랜만에 비 오는 밤을 만나면 가끔 듣고 싶어지는 음악이 있다.

말러나 베토벤, 브람스는 너무 무겁고 조금은 가벼운 기분으로 듣고 싶어지는 그런 음악 말이다. 내게는 그런 것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그는 전부 5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였는데 나는 그중 마지막 곡인 제 5번 A장조 K219를 제일 좋아한다. 부제로 "Turkish"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가 1775년에 작곡하여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Salzburg에서 초연되었다.

제 1악장 Allegro aperto, 제 2악장 Adagio, 제3악장 Rondeau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의대 재학 중이던 시절 어떻게 알게 된 E대 음악과 학생들과의 미팅으

로 그들의 중간 연주회, 졸업연주회를 들으며 신촌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중의 한 명이 바이올린 전공이었는데 졸업 연주로 이 곡을 연주한다기에 비 오는 어느 여름밤 그 학교 강당에 갔었다. 그곳은 아직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피아노 콘서트를 열 수 있었던 장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느 해인가는 외국에서 초빙해온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갔었다. 한참 연주가 계속되는 중인데 강당 뒤 쪽을 지나가는 철길을 달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지 않는가!

내가 마음이 콩알같이 오그라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지냈었다.

연주회장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동기 M군을 만났다. 그

는 내가 아는 사람 중 제일 머리가 좋은 친구였다. 아마 준 천재급이었을 것이다. 그가 몇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중간에 끼어들어 듣게 되었다.

"오늘 남산에 갔었는데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었지. 여자가 남자애 보고 자기야, 세상의 나무 잎들이 초록이 아니면 난 어떻게 살까?"

남자애가 맞아, 세상이 회색빛으로 다 덮어 버렸다면 참 살맛 나지 않았을 거야. 어찌고 하면서 청포도를 돌이켜 따 먹고 있었어."

왜 아직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5번 협주곡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졸업 연주회와 함께 기억 해내는 나의 짧은 날의 에피소드이다.

고전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제일 먼저 LP나 CD를 뒤져 찾아내던 곡이 이 곡이었다. 학생 때 아마도 수백 번은 들었을 것이다. 연주가별로 구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중 제일 백미라는 Arthur Grumiaux의 연주를 제일 좋아했었다. 여러 연주자들을 거쳐 지금은 Anne-

Sophie Mutter의 연주로 된 DVD를 얼마 전에 구해 잘 듣고 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곡이 전부 수록된 전집이다. 그녀가 연주하고 Camerata Salzburg를 지휘도 하고 있다.

그녀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 데뷔했을 당시의 옛된 모습은 이젠 없다. 내가 나이를 먹는 것은 몰라도 나이 나이를 먹는 것을 보니 내가 늙어가는 것을 안다. 이젠 내가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내가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인가 있을 때 당시 음악 선생님이셨던 박관길 선생님이 우리를 야외 교실인 피조리 동산에 앉혀 놓고 들려주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라벨의 "볼레로" 덕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았던 조그만 포터블 전축으로 들었던 것이나 바람 소리, 간간이 들리던 새소리와 같이 들은 이 음악들은(다음면에)



COVID-19 체험기

안병일 (69, 남가주)

COVID가 기승을 부리며 3rd wave로 강타하는 동안 몇몇 마취과 동료들을 감염 시키고 병원 환자의 1/3을 점령하여도 "나야 뭐..."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employee들과 medical staff을 위하여 가끔 실시하는 test가 있어서 공짜를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속성 때문에 받은 것이 12월 3일. 내 콧구멍을 난잡스럽게 후벼 팔때는 후회했지만 이미 겁탈은 끝나 버렸다. 그리고 test 받은 사건마저 잊어버리고 일에만 열중하던 12월 7일, 전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냉랭한 목소리, "Dr. Ahnn, your test is POSITIVE. Please stop your work and go on self-quarantine!" "What? Me?" 잠깐 사이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사이 먼저 세상을 떠난 동기생들 얼굴이 문득 하나둘씩 떠오르고... 누군가 그러했지, "안병일, 채식까지 하며 젊게 살려고 노력하더니 76세에 요절(?) 하는구나. 한 30년 더 살아도 되는데."라고 할 것이다.

허겁지겁 주섬주섬 일을 마감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주위에 있는 Urgent Care Center에 2nd test (Rapid Test or Antigen Test)를 예약 해놓고 차에 앉아서 다시 긴 명상에 잠겨 보았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찌한 걱정들이 밀려온다. 내 가족은...?

혼잡스러운 Urgent Care Center에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기나긴 기다림 후에 간호원이 전해준 쪽지에 적힌 "NEGATIVE"는 반갑기 보다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선 집에 가지 않고 병원 가까이 있는 나의 조그마한 condo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기거하기로 했다. 내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감염의 chance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 사이에 무겁게 쌓였던 피로를 삭히고, Email을 check 하고, 이력저력 빈둥거리는 것도 처음에는 싫지 않았지만 3일 연달아 방콕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아니지, 아프지는 말아야지... Dr. Waters는 우리 병원에서 COVID 방역을 총괄하는 명망 높은 의사인데 그에게 나의 사정을 알렸더니 지금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면 더 이상 자가 격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

아마 처음 test (Polymerise Chain Reaction test)에 결함이 있었던지 아니면 얼마 전에 무증상으로 COVID-19를 앓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옛이야기이러나?

이렇게 COVID test가 3일 동안 말쑥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 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12/16/2020 남가주에서

2020년 겨울을 위한 현악 4중주

서 량(69, 대뉴욕)



1악장 - 대형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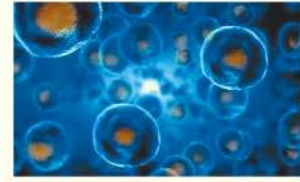
겨울이 싸락눈을 감싸 안고
아무 생각 없이 부서지는 광경이다
꺾어진 겨울 나무 잔가지를 보십시오
밤 사이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 틀림 없습니다
겨울 감상법은
진정 당신 마음 하나에 맡겼어요
나무와 바람과 하늘이 한 판 크게
어우러지는 새벽이잖아요
시린 코를 하얀 마스크로 덮은 겨울이
바람 속에서 잔기침을 하는 풍경이다
아무래도 겨울을 숙청해야 되겠어,
하며 당신은 내게 낮게 속삭인다
들숨이 잦아든다



2악장 - 내 겨울詩는 음산하다

사람 없는 뉴저지 북부 해변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 보면 알 수 있다
무작정 비상하는 생명들이 남기는 흔적
그 빛들이 즉각각각 화석으로 보존되는
당신 의식 속 가장 내밀한 공간에 가 보면
발바닥에 밟히는 뿌리 깊은 모래알이 깔깔해요
귀청 따가운 겨울 파도의 아우성
당신 앞머리를 들뜨게 하는 뉴저지 북부
해변을 걸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아무리
해신(海神)의 숨소리가 귓볼을 덮히는 동안
황금사과를 내가 매장시킨 가을이었더라도

노란 금가루를 떨치며 날아가는 나비 한 마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도저히 잡지 못할 거예요
내 알뜰한 상상 밖으로 총알보다 빠르게 호랑나비
한 마리 날아간 뉴저지 북부 가장 은밀한 해변에
오늘이라도 차 몰고 가 보면 대뜸 알 수 있다



3악장 - 굳은살

우르르 몰려드는 푸른 세포들
싱싱한 줄기세포들이 사방을 살피는 동안
면역이 생긴다
면책특권의 쾌락
당신 살결이 연회색이었다가
차츰차츰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다
벌판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깃발 나무기는 소리가 귓전에 아른거리네
싱싱한 줄기세포들이 바로 백혈구의 전신이었어
발바닥에 불이 붙었어요
정신이 아뜩해
생살 터지는 분홍빛 세포막은 무통분만이다
심한 격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을 거다
길고 힘겨운 겨울을 치르는 동안
당신 가슴에도 굳은살이 박일 것이다



4악장 - 겨울 냄새

아까부터 겨울이 부스럭거려요
벌거숭이 팔을 흔들며 창밖에서
떡갈나무들이 부르는 합창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중간에 나오는 트럼펫 솔로가
따따따 울립니다
진눈깨비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잖아요
신바람나는 개다리춤,
내가 좋아하는 개다리춤,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하는 애원으로 이어집니다
아까부터 내 쪽으로 다가오는 은빛,
신선한 은빛 기류(氣流)를
맞이하고 있어요 나 지금



팬데믹

노영일 (68, 시카고)

2020년 12월 17일 Pfizer Covid-19백신 주사를 맞았다. 전염병 예방센터(CDC)의 결정에 따라 현역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일 순위 첫 번째 그룹으로 예방주사를 맞는 “영광”을 누렸다.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첫째 줄에 서서 맞았다.

너무나 서둘러 만든 예방주사라서 부작용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불안감도 있었다. 임상실험 단계에서 몇몇 과민반응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시술한 영국에서 몇몇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더구나 장기적인 부작용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얼마간 기다려 보다가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맞을까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맞겠다고 한다. 아내는 항상 나보다 겁이 없다.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도 팔을 걷어 붙이고 주사 맞으러 간다고 하였다. 용기를 내어 약이 도착한 첫날 주사를 맞았다. 맞고 나니 매년 맞는 여느 독감 예방주사나 다를 바가 없었다.

일 년 전 중국 우한에서 괴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으나 강 건너 불 보듯이 별 관심도 없었다. 중국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는 이상한 것을 잘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생각했다. WHO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발표하고 에피데믹 정도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에서는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고 서로 밀치고 아우성치는 장면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폐 죽음을 당하고 있었다. 이 병의 위험성을 처음 경고한 중국 의사는 유언비어 죄로 잡혀 들어가 고초를 당하고 결국 자신도 이 병에 걸려 죽었다.

미국에는 우한에서 씨야들을 방문한 중국 여자가 알려진 첫 번째 환자였다. 그 후로부터 삼시간에 병이 퍼져 나갔다. 대통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며 중국 사람들의 병처럼 과소평가를 했다. 거리에서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으로 오인되어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감이나 사스 유행을 경험한 나는 즉시 마스크의 중요성을 느꼈다. 나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대통령은 전문 의사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듯 하였다. 자기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고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자기는 말라리아 약을 먹고 있어서 절대 병에 안 걸린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다른

만성병으로 이 약을 상복하는 환자들은 약이 품절되어 애를 먹었다. 전국 TV에 나와 소독약을 환자에게 주사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할 때는 입이 딱 벌어져 닫히지를 않았다. 결국 대통령 자신도 이 병에 걸려 입원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뉴욕에서는 영안실이 넘쳐나 사체를 냉동차에 쭈셔 넣고 길에 방치하기까지 했다. 자동차 회사를 동원하여 인공호흡기를 급조하기도 했다. 금년 연말 현재 미국 내 확진 환자가 1,800만 명이고 사망자가 32만 명이나 된다. 미국이 세계 제 일위가 되는 불명예를 얻었고 이 병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며 퍼져 나가고



있다. 아직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론이 분분하고 모르는 점도 많다.

가족, 친구들도 만나 볼 수 없었다. 손주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 전달할 물건을 놓아두고 손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했다. 학회나 동창회나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다. 식당이나 극장도 문을 닫았다. 상가도 철시하였다. 식료품점에 들어가려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스크, 소독약, 휴지 등은 아예 일찌감치 동나 버렸다. 교회에도 갈 수가 없다. 예배도 비디오로 하고 회의도 비디오로 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상(virtual) 시대가 도래 하였다. 명실공히 집에 갇혀 자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3월 초에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응급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들은 비디오나 전화로 치료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병원에 들어가려면 열을 재고 몇가지 질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마스크는 필수였다. 그래도 보통 마스크(surgical mask)는 쓸만한데 N95 (respirator) 마스크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어떤 의사들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쓰기도 한다. 안경이 자주 뿌옇게 안개가 끼서 애를 먹기도 했다. 직접 환자를 볼 때는 얼굴 가리개까지 하고 마치 우주인 같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했다. 코나 눈이

가려우면 굵을 수도 없었고 땀이 나도록 딱을 수가 없었다. 땀 수 있는 한 환자와 멀리 앉아 진찰을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썼다. 수시로 손을 씻고 고무장갑을 갈아 껴다. 수술이나 밀착검사(procedure)를 해야 할 때는 환자로 하여금 Covid-19 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후에야 했다.

5월쯤 되니 약간 소강상태가 되어 일반 환자로 직접 대면 진료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겁도 덜 났다. 비디오 동영상 진료는 젊은 환자들은 꽤 잘 하는데 나이 든 환자들은 어려워했다. 안되면 전화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한정적이었다.

여름이 되니 골프장이 문을 열었다. 너무나 기뻐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곤 골프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카트 한대에 한 사람씩 타고 마스크도 써야 했다. 책임도 프로숍 앞마당 옥외에서 했다. 시간이 가니 이것도 흐지부지되고 카트도 두 사람씩 타고 마스크 쓴 사람도 적어졌다.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떠들여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식당도 야금야금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바삭 긴장을 하다가 얼마 지나니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평생 마스크를 써 본일이 없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은행강도나 하는 짓 정도로 생각 하는것 같다. 더구나 강제로 쓰라 하면 더욱 안 쓴다. 자유를 속박 받는 것이 병에 걸리는 것 보다 더 싫은 모양이다.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주의를 준다고 경비원을 때려눕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코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진찰실에서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올려 코를 가리라고 계속 주의를 주어야 했다.

나는 퇴근하면 즉시 소금물로 가글을 하고 몸을 씻었다. 저녁식사 때는 의식적으로 많은 김치를 먹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없지만 나의 직관으로는 김치가 사스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한국 사람들이 사스 유행 때도 별로 피해가 많지 않았고, 같은 종류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다른 민족보다 비교적 적게 걸리고 사망자도 적은는 듯 하다. 김치를 먹기 때문인가?

한동안 주춤하던 팬데믹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정신이 해이해지고 방역에 소홀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다시 일반 수술은 연기하고 응급 수술만 허용한다. 대면진료는 꼭 필요할 때만 한다. Covid-19 병동은 환자들로 넘쳐 난다.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할 때면 병원 전체에 라우드 스피커로 헨델의 메시아를 틀어준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해 본 사람 만이 안다. 더구나 한두 달 넘어가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 급성기에는 물론 회복기에도 여러 가지 신경 증세도 있다. Covid-19 환자가 많아지니까 다른 병으로 입원할 환자의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병 옮을까 봐 무서워 병원에 오지 않고 있다가 위독해지는 경우도 많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미물이 인간 생활을 전반에 걸쳐 황폐화 시켰다. 경제는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속출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영구 폐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폐쇄적인 생활로 정서적 불안마저 생긴다. 사람(人)은 서로 접촉하고 기대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절대 살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무심히 지내던 팬데믹 이전의 생활이 그리워진다. 이 인류의 재앙이오 어려운 시련인 팬데믹이 언제나 끝나려나. - 2020년 12월 말

사진: 방호복을 입은 노영일 동문과 노 동문의 그림.

그림자 놀이

김영희

긴 삼각형 그리며
햇빛이 들어 온다.
그림자 들어 온다.
썩은 나무 토막이
수석이 되어
그림자 길게 들어 온다.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너의 깊은 아름다움은
아무도 어찌지 못함을
너는 안다. 나는 안다.



글, 사진: 이건일(68) 동문 부인

<전면에서 계속> 나에게 참 커다란 무게로 다가왔던 것 같다. 참으로 신천지가 전개되던 순간이었다!

이후로 구할 수 있는 대로 LP 판을 구하여 닳치는 대로 들었고 귀가 좀 열리자 좀더 체계적으로 음악을 찾아 듣게 되었고 그러다 슈베르트, 베토벤 후에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나의 제일 큰 영웅이고 존경, 동경,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나온 영화 “Amadeus”는 나의 모차르트 숭배 여정의 종착역이 되었다.

한번 클래식에 미치게 되니 용돈을 모아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들으러 명동 시공관을 들락거리게 되었고 LP 판을 수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학교 시절 부잣집 친구 집에서 처음 접한 그 당시 최신 기술인 Stereo system은 가히 천지개벽에 가까운 음의 새로운 지평선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때 받은 그 충격으로 나는 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High End Music

reproduce system에 입문하여 큰 비용을 지불하며 나의 시스템을 추구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큰 비용을 지불했어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없다.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았으니 여한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돈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자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찰프버그, 루체른, 런던, 비엔나로 오페라 들으러, 또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러 쫓아다녔었다. 레코딩된 음악은 실제 연주에 비해 통조림된 음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였다.

모차르트 외에 그 유명한 소위 5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베토벤,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브르크 등의 곡들을 애청했었다. 특히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나의 젊은 날의 고민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었다. 나는 이 곡도 한 200번 이상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David Oistrakh의 연주판을 잘 모시고 있다. 요즈음은 모차르트를 약간 옆으로 제

껴 놓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경연 상황을 보면서 영탁, 임영웅, 요요미 등 신진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다.

소위 뽕짝이라는 이 트롯 장르가 BTS에 이어 전 세계를 석권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기세 같아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제법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요요미의 포부처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트롯을 알고 즐겨 듣고 따라 부르게 되는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렸다.

나는 주현미, 설운도, 진성도 좋아한다. 특히 그가 너무도 고생스러운 젊은 날을 겪었기에 부를 수 있는 진성의 “보릿고개” “동전인생” “태클을 걸지 마” 같은 노래들을 좋아한다.

바이올린 협주곡과 트롯은 거리가 먼 것 같으나 음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 고민에서 잠시나마 휴식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슈베르트가 “An die Musik”에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

Du holde Kunst, in wieviel grauen Stunden,
Wo mich des Lebens wilder Kreis umstrickt,

O blessed art, how often in dark hours,
When the savage ring of life tightens round me,

Hast du mein Herz zu warmer Lieb' entzunden,
Hast mich in eine beßre Welt entrückt,
In eine beßre Welt entrückt!

Have you kindled warm love in my heart,
Have transported me to a better world!
Transported to a better world

Oft hat ein Seufzer, deiner Harf' entfloßen,
Ein süßer, heiliger Akkord von dir,

Often a sigh has escaped from your harp,
A sweet, sacred harmony of yours

Den Himmel beßrer Zeiten mir erschloßen,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dafür,
Du holde Kunst, ich danke dir!

Has opened up the heavens to better times for me,
O blessed art, I thank you for that!
O blessed art, I thank you!

2020년 노벨 문학상 작가 Loiuse Gluck 작품을 읽고

서윤석 (68, 버지니아)

미국 동북부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고 문인들 특히 시인이 많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문 대학인 Harvard, Yale, Princeton, U. of Pennsylvania, Dartmouth, Brown, Amherst 가 있어서 그 대학들과 도서관들을 찾는 것이 본인에게는 평생 버릇처럼 되어있었고 또 이 근처의 작은 도시들의 책방을 자주 들러서 기웃거립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Prid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의 Brain이고 Leader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가 1970년 초 만났던 미국 사람들의 여유 있고 친절하던 당시의 인상을 상기 시킵니다. Cambridge (MA)의 Harvard Square의 Coop이나 Hanover (NH) 산속의 Dartmouth 대학 근처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동네의 작은 책방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초겨울에도 눈이 많이 쌓입니다. 산비탈에는 야생 칠면조들이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짙은 숲과 울려다 보이는 산위에는 하얗게 눈이 덮여 장관을 이룹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맑은 공기에 도시의 소음도 안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보면 작은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수백 년 전부터 시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모여 살고 있습니다. Robert Frost, Emily Dickinson, David Budbill, R C Williams, Louise Gluck 등등. 눈보라 속에서 농사꾼으로 살던 Robert Frost의 시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 시인이 살던 옛날 집(박물관)에 가서 보면 당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어려운 인생의 체험에서 우러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 하나하나의 작품이 그때 왜 쓰여져야만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ew Haven Conn.에 위치한 Yale 대학에서 강좌를 맡고 있으며 Cambridge Mass.에서 살고 있는 시인 Loiuse Gluck은 젊은 시절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말라서 죽어가는 정신병인 anorexia nervosa를 경험한 시인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Lament(비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 통곡을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서정적(Lyric)인 시편들은 독자들에게 노래하고 이야기하듯 또 절규하는 외침으로 쓰여졌습니다. 억지로 만든 형식이 아닌 자유로운 구절과 내면의 리듬으로 독자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점이 Dickinson과 다릅니다.

거의 150년 전에 격리된 환경에서 쓰여진 Emily Dickinson 시들은 농축된 언어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지만 술술 풀리며 독자들에게 쉬운 언어로 친근감을 주는 L.G.의 작품을 본인은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혼자만의 지나친 은어로 쓰여진, 독백같이 자신만 만족하는 작품들로 독자를 실망시키는 시들이 유행하는 현 문학세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친근감을 주는 시인에게 이번에 Nobel 문학상이 수여됐다는 것은 찬성할 일입니다. 그녀는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무서웠던 죽음을 극복한 시인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시인들처럼 그녀도 그리스 신화와 서양의 고전문헌과 종교에 박식합니다. 자신의 많은 체험들을 정확하고 쉬운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생에 대한 성찰과 인류애(Humanity)가 바탕이 되어있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그녀는 유명한 문학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2020년 Nobel을 받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인은 이 지면을 통하여 지난 12월 19일 워싱턴 영문학회(회장 김영기 조지 워싱턴 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소설가 한무숙 문학 연구회장)에서 우리 같이 토론하기로 되어있었던 최연홍 시인이 번역한 L.G. 작품과 본인이 번역한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첫 작품은

만성절(할로윈) 루이스 글릭 작, 최연홍 역

역자는 말합니다. <할로윈은 어른 모두 즐기는 세속 풍습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자의 날로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다. 시의 풍경은 추수가 끝난 빈 들녘, 그녀의 집, 집안에, 아니면 집 밖

에서 있는 나무에서 어린아이에게 어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11월의 풍경화, 자유시, 이 시엔 리듬이나 리엄 Rhyme韻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의 내면세계, 고독과 빈 들녘, 아이야, 이제 들어와라, 반복어, 색깔,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르는, 이빨 빠진 달이 떠오르고 황소는 외양간 푸른 멍에에서 쉬고 있는 저녁 풍경, 고기에 금빛 씨앗들이 던지는 이미지는 은유와 상징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단단하게 지어진 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11월은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잎이 떨어져 숲길을 메우고 동네를 아름답게 동양화 한 폭으로 만든다. 추수가 끝나고 들녘은 비어있고 건초더미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길가에 쌓여있고, 그래서 사람들도 빈 들녘처럼 마음을 비우고 성스러움을 찾아가는 달이다. 그 저녁 아낙은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준비하는 풍경을 묘사한 우수작이다. 이 시의 후반부는 상징과 이미지가 섞여 있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All Hallows

by Louise Gluck

Even now this landscape is assembling,
The hills darken. The oxen
sleep in their blue yoke,
the fields having been
picked clean, the sheaves
bound evenly and piled at the roadside
among cinquefoil, as the toothed moon rises:
This is the barrenness
of harvest or pestilence.
And the wife leaning out window
with her hand extended, as in payment,
and the seeds
distinct, gold, calling.
Come here
Come here, little one.
And the soul creeps out of the tree.

만성절(할로윈)

루이스 글릭 작, 최연홍 역

지금까지 이 풍경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네.
언덕은 어두워지고 황소는
그들의 외양간에서 푸른 멍에를 걸친 채
잠 들었네.
들녘은 수확이 끝나 비어있고 '건초더미'는
한결같이 묶여
길 옆에 쌓여있고
초생달이 떠오르면
양지꽃 무늬처럼 변한다.
이것은 추수 후 삭막함이다.
아니면 역병이 휩쓸고 지나간 황폐함이다.
아낙은 창가에 기대 빛을 갖듯
손을 내밀고
각각 유별난 금색 씨앗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아이들아, 조금 더 가까이 오너라.
깨끗한 영혼은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Lament

by Louise Gluck

A terrible thing is happening-my love
is dying again, my love who has died already:
died and been mourned. And music continues,
music of separation: the trees
become instruments.
How cruel the earth, the willows shimmering,
the birches bending and sighing.
How cruel, how profoundly tender.
My love is dying, my love
not only a person, but an idea, a life.
What will I live for?
Where will I find him again
if not in grief, dark wood
from which the lute is made.
Once is enough. Once is enough
to say goodbye on earth.
And to grieve, that too, of course.
Once is enough to say goodbye forever.
The willows shimmer by the stone fountain
paths of flowers abutting.

<다음면에 계속>

고마운 마리아

진료실 책장 위에 놓인 소녀의 머리를 본다
멕시코 산골에 살던 마리아 곤잘레스를 본다
그녀의 보드랍던 고운 얼굴을 만지면
열두개의 신경줄이 나오고 붉은 동맥이 박동하던
푸른 정맥이 달리던 구멍을 본다

검정 볼펜으로 측두에 선을 그으면
골절을 수궁하던 배심원의 눈빛도 보이고
환자의 고통도 보인다
의학을 배우는 자나 의문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마리아를 본다

우리 그녀를 볼 때면
맑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뜬다
맛있는 음식도 먹는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
글을 쓰고 남을 가르치고 창조도 하는
하하 웃음도 짓는 우리의 머리를 본다

마리아를 볼 때면
독한 포르마린 냄새가 눈물을 흘리게 한다
연구실의 카테이바가 누워 있다.
피부가 해부되어 장색 근육이, 하얀 신경줄이 노출되던
시신을 본다
뼈가 톱에 잘리고 장기가 드러난 영혼들의 시신을 본다

열여섯살 처녀 마리아
너는 늘 어린 나이에 책장 위에서 조용히 살다가
우리가 부르면 선뜻 내려와
모두에게 등불이 된다

고마운 마리아
너는 이 땅 위에서 천년을 산다



2010년 시문학 3월호에 '두개골'로 발표,
2020년 12월 한근대 교정함
저자: 서윤석(68)

Gracious Maria

Seo, Youn Seok

There is a head of a girl on the bookshelf in clinic.
I see Maria Gonzales, a girl who resided in
remote mountain village of Mexico.
When we touch her imaginary soft face, we feel the holes,
where the twelve nerve fibers went through,
where the red pulsing arteries and the blue veins passed through.

When we draw a line on her temple with a black ball pen,
we are staring at the stern eyes of the jurors as they were making
the verdict of bone fracture.
When we see Maria, we feel the myriad pain of the patient.
Whoever has questions, whoever studies the medicine,
all come to see Maria.

Through the absolute silence of her head, we hear the mumuring
of clear water, we see the colorful rainbows, we taste and smell
the delicious food.
Homo sapiens who can imagine, think, write, use the hands, create
and teach others,
we see ourselves through her head.

In her, we see a cadaver in the anatomy lab with its piercing odor
of formalin tearing our eyes.
Here is the vestige of soul, the dead body
whose skin has been torn, dissected revealing reddish muscle,
white yellowish nerve fibers, whose bone cut into pieces
and internal organs exposed.

Sixteen-year-old virgin girl, Maria,
you will always preside over us
from the top of the bookshelf in the clinic,
shrouded in your perpetual youth.
Whenever we call, you would descend to us to be the light.

Oh, lovely Maria,
you will live for thousand years
in your own exalted place.



2020년 10월 27일 미국 프로야구 Los Angeles Dodgers가 Tampa Bay Rays와의 7전 4승제 경기에서 전적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World Series의 Champion 트로피를 차지했다. 2016년에 부임한 다저스 David Roberts 감독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두 번에 걸쳐 월드 시리즈에 도전했으나 준우승에 그쳤고 2019년에는 정규 시즌 106승으로 National League 전체 1위의 전적을 가지고 post season에 임하였으나 챔피언십 경기가 무산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로버츠 감독의 경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저스 구단은 다시 한번 그를 신뢰함으로 4년 계약을 맺었다. 이번엔 이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잘 다독이면서 과거 자신의 실수를 보완한 로버츠 감독의 유연한 경기 운영과 새로 영입한 Mookie Betts의 대단한 활약이 있었다. 포스트시즌 ERA 1.28인 피쳐 Walker Buehler 그리고 10월 징크스를 깨고 기대 이상의 투혼을 한 피쳐 Clayton Kershaw의 완벽한 플레이였다. MVP는 월드 시리즈 여섯 경기에서 홈런 두 개를 포함해서 더블 안타 4개에 stolen base까지 감행한 Corey Seager에게 안겨졌다.

2015년 7월 LA로 이사를 하고 아내와 나는 열렬한 Dodgers 팬이 되었다. 다저스 경기는 유일하게 Spectrum Cable TV에서 독점 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청료를 덤으로 지불하면서 시청했는데 단 한 번도 다저스 게임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 부부는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40여 년 전 St. Louise에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속해있는 Anesthesiology Group에서 해마다 세인트루이스 Cardinals의 시즌 티켓을 구입해서 그룹 멤버들에게 나누어 주어 Bush Memorial Stadium에 자주 가서 카디널스를 응원했다. 1982년에는 카디널스가 밀워키 Brewers를 4 대 3이란 아슬아슬한 스코어로 이기고 월드 시리즈의 패권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당시 활약했던 유명한 선수들의 모습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카디널스를 세 번(1982, 1985, 1987)이나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한 감독 Whitney

Horizon을 비롯하여 base stealing의 달인이었던 Lou Brock 그리고 오프닝 때마다 dugout에서 뛰어나오면서 공중제비의 묘기를 보여주므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수비의 명수 Ozzie Smith 등이다.

Stadium에 가지 못한 날이나 TV 중계가 없는 날에는 radio를 통해서 들었는데 경기 내용을 자세히 재미있게 해설해 주던 Jack Buck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의 구수한 목소리에 몰두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경기가 있는데 1974년 9월 11일 뉴욕 Shea Stadium에서 세인트루이스 Cardinals와 뉴욕 Mets의 경기로 무려 25회 연장 끝에 카디널스가 4 대 3으로 승리한 경기로 야구 사상 the most non-tie game으로 기록된다. 그 날 밤 나는 11시경에 자리에 누웠으나 승패를 알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연장전이 거듭할수록 이번 회에는 끝나겠지 하면서 눈을 비비가면서 라디오 중계를 들었는데 경기가 끝나 시계를 보니 새벽 한 시 12분이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카디널스가 이겨서 기분만은 상쾌했다.

의료직에서 은퇴하고 샌디에고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물론 San Diego Padres를 열심히 응원했다. 불행하게도 이 팀은 한 번도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팀에 남달리 빼어난 선수가 있었는데 Hall of Fame에 입영한 Tony Gwynn으로 2007년 그 업적을 기리는 동상이 Perco Park에 세워졌다.

2020년도 MLB schedule은 COVID-19 사태로 7월 23일부터 각 팀이 무관중 속에서 60경기를 마치고 play-off로 이어지는 이례적인 해였다. 다저스는 30개의 구단 중에서 가장 높은 승률로 정규전을 끝마쳤기에 이번에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될 확률 높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나는 무한히 기쁘다. 2013년부터 다저스에서 starting pitcher로 활약했던 닉네임 Monster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Blue Jays로 이적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championship ring을 끼는 행운을 가졌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이다. Tampa Bay Rays에서 1루수로 활약

하는 최지만 선수는 공격면에서보다는 수비에 탁월하다. 양 다리를 일자로 짝 벌리면서 송구해오는 공을 멋지게 잡아내는 소위 '다리 찢기' 폼은 다른 선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묘기로 관전하는 사람마다 탄성을 내게 한다. 팀 멤버들과도 잘 어울리는 낙천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 그의 인기는 대단해서 코로나로 입장이 제한된 소수의 관중 가운데 'We love Ji-Man Choi' placard를 흔들면서 그를 응원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보면 놀랍기도 또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다.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그가 속한 팀과 베이 Rays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아내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아마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팀과 베이 Rays가 이겨서 최지만 선수가 챔피언십 cap을 쓰고 기뻐하기를 기대해 본다.

야구에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명언이 있다. 2020년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이에 해당되는 드라마틱 한 장면이 벌어졌다. Dodgers가 7 대 6으로 앞선 가운데 Rays의 9회 말 공격만 남아 있었다. 다저스의 Roberts 감독은 클로징 피쳐인 Kenley Jensen을 마운드에 세웠다. Rays의 첫 번째 타자인 Yoshitomo Tsutsugo는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물러났고 두 번째 타자인 Kevin Kiermaier는 공을 치는 순간 bat가 부러지면서 내야 안타가 되어 1루에 진출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Rays의 더그아웃에서는 희망의 실마리를 잡은 듯 요동을 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세 번째 타자인 Joey Rand Wendel이 line out 되면서 더그아웃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네 번째 타자인 Randy Arozarena가 타석에 들어오자 수비인 다저스의 내야수들이 mound로 몰려와 Jensen을 둘러싸고 의논하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의견을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Arozarena가 강타자이니 좋은 공을 던져주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며 추측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홈런 10개를 비롯하여 무려 27개의 안타를 터트려 시리즈의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2 strike 3 ball에서 Jensen이 던진 공이 ball이 되면서 1루로 나가고 Kiermaier는 2루 옮기게 됐다. 9회 말 2아웃 모두 손에 땀을 쥐고 이제 곧 전개될 구장의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광경이었다. 다섯 번째로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Brett Phillips로 bench player인데 17일 만에 pinch hitter로 지명되어 나온 선수다. 이 선수를 보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 선수의 타율이 2할도 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이다. Rays의 Kevin Cash 감독의

생각은 우완 투수인 Jensen과 대결할 타자는 확률이 높은 좌타자라면 한다는 관념에서였을까? 나의 짧은 추측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 10중 8, 9는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Jensen의 투구는 날카로워 2 strike로 타자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네 번째로 던져진 빠른 직구를 필립스의 방망이가 제대로 맞추어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다. 주자는 홈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고 2루에 있었던 Kiermaier는 여유 있게 홈인 했다. 한편 다저스의 중견수인 Chris Taylor는 Phillips가 친 공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지만 공이 클러치를 스치며 빠져나가자 잡으려고 머뭇거렸는데 이때가 Arozarena가 3루를 돌고 넘어지는 순간과 일치한다. Taylor는 다시 잡은 공을 1루수인 Max Muncy에게 송구했고 Muncy는 catcher Will Smith에게 던졌는데 그 공이 Smith의 클러치를 빠져나가는 잘못이 발생했다. 3루와 홈 사이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catcher에게 이 날아오는 공을 보는 순간 Arozarena는 3루로 돌아가려다가 Smith가 공을 놓치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홈으로 돌진 sliding 하면서 home base를 뚫친 후 성공, 오른손으로 plate를 탕탕 두들기며 기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Rays의 더그아웃에서는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며 모두들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뛰쳐나와서 서로를 얼싸안고 더듬실 춤을 추면서 짜릿했던 역전승의 순간을 만끽하는 흥분의 도가니였다. 나는 다저스 팬이어서 잠시 쓸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최지만 선수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야구의 매력을 살펴보면 첫째로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공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경기이고 둘째는 희생타(bunt, sacrifice fly, squeeze play)로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득점을 내게 하는 희생정신이 들어있는 스포츠이다. 마지막으로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catcher였던 Yogi Berra의 명언으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의미로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스포츠이다. 지금 우리가 모두 COVID-19 Pandemic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치 우리의 현실이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2아웃에 처해있는 선수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의 힘이 있다.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아니 야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야구는 9회 말부터라는 명언을 믿는다.

일 년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닌가? 태양을 도는 8개의 위성 중에 오직 지구만이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또 지구의 자전축이 23.44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많은 부위에서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 어렸을 때는 태양의 위성이 9개로 배웠으나 최근에 명왕성은 퇴출되었다.

각 계절은 저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중에서 겨울은 기온이 차므로 생물들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많은 동식물들은 다음 해의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겨울의 특성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이다. 눈이 왜 흰색인지는 모르지만 눈이 많이 쌓여지면 눈을 덮으면 마음마저 깨끗해 지는 것 같다. 눈이 많이 오면 길거리의 자동차도 덮여 버리고 시골의 작은 집들은 눈 속에 파묻힐 수도 있다. 지붕 위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처마 끝에 고드름을 만들고 예전에는 처마에 줄줄이 달아 놓은 씨앗 옥수수나 어울려 시골의 한 풍경을 이루기도 하였다. 눈이 덮인 벌판 위에 뒹굴고 싶은 충



동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예전에 Love Story라는 영화가 있었다. 남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사랑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던 이 젊은 연인들은 둘이서만의 결혼을 한다. 둘이서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꿈결같이 아

름다운 이 영화의 주제가(Snow Frolic)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하얀 눈 속에서 뒹구는 그 장면은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라는 대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쳤다. 이런 장면은 겨울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젊을 때 있었던 즐거웠던 추억을 노년 이 되었다고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나이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니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예술가처럼 아름다움을 찾아 추억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자기 인생의 끝날이 올 때 물건은 못 가져가더라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숨어있던 감정을 일깨워서 젊었을 때의 설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잊을 수 없는 그림 같은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나이가 먹어 가면 세월은 더 빨리 지나가니 좋은 추억을 만들기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주위에 흰 눈이 많이 없다면 눈이 많은 곳에 가서라도 눈 속에 파묻혀 보는 꿈을 이루어보는 것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상황이어서 개선되어 자유롭게 여행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진: 나두섭 촬영
Alaska Fairbanks 근교 Dog Sled

고령사회에 사는 우리들



이수인 (63, 남가주)

차라투스트라라는 말한다. 알맞은 때 죽어라(Die at the right time).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죽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벌레 먹은 사과처럼 가지에 매달려있어. 쓸데없이 넘쳐흐르는 사람들, 속이 텅텅 빈 바보들도 자기들의 죽음을 떠들어대지. 인생을 완결하게 이용한 사람은(consummate) 승리롭게 죽어.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할 때 죽는 자유로운 죽음(free death)이 잘 죽는 법이야. 이가 전부 빠진 입은 모든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어. 어려운 일일세. 알맞은 때 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맞은 때 죽지. 초인(Uebermensch)도 장장 십일 년을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 김희선의 단편소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엔 복지부 비밀기관이 운영하는 뉴 제너레이션이란 단체가 있어. 이들은 웰다잉을 역설하지. 살아있되 살아 있다고 하긴 애매한 삶과 죽음의 중간 지대를 맴도는 인간들. 끝없는 인생을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루하겠나. 늙는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야.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이 축복이지 두려운 게 아니고. 자연의 장엄한 순환이야. 능동적으로 죽음을 제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보세요. 세상을 가득 채운 넘쳐나는 노인들. 모든 인간적인 것이 쇠퇴해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소멸과 파멸로 가고 있지. 쓸모없는 구성원들을 내쫓아야만 건강하고 싱싱한 구성원이 살아갈 수 있거든. 모두 노인을 싫어해. 사라져 주길 원하고 있는 거야. 소문을 들었어? 뉴 제너레이션이 뉴욕의 황제를 접촉했다지. 황제는 당장 minions를 불러 코비드환자를 널실함에 이송했다지. 전염병 환자 취급 준비가 안된 곳에 말이야. 몇백의 흡에 킬링필드를 만들어 육천의 노인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지. 큰 공사였어. 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 봤어? 황제는 national crisis란 책도 써서 돈도 챙겼거든. 범죄자는 아직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거야. 아 참!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이 되고 백만 명을 죽이면 혁명이 된다는 말이 있는 걸 잊었네. 몇천 명이면 국가의 영웅이 될 거야. 박형서의 소설 "당신의 노후"에는 노인들에 대한 혐오와 질타가 점점 더 심해진다.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은 젊음을 연료로 가속화하는 사회.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연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

게 된다. 연금 이사가 노인들을 부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연설을 쓰아부친다. 왜 안 죽어?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대체 왜들 안 죽는 거야. 하는 일이라고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게 전부인 주제에 당신들은 왜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거야. 나는 "무력무력" 늙어간다. 어떻게 알았어? 내 생일날에 방문한 뉴욕에 사는 아들이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았지. 싱거운 맥주+늙은 부모=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인간적 가치가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달렸다면 나는 아들에게까지 가치가 푹 떨어진 인간이 된 거다. 생동하는 젊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침체된 인간. 말도 글도 잘 안 통하는, 귀까지 잘 안 들리는 늙은이. 소통이 안되는 노인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버린대네. 노인이 희귀한 존재일 때는 그래도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이었지만 시대가 바뀌고 넘쳐 흐르는 노인들은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게야. 프레베르의 시를 읽어 보자. 지구가 돌지 않는 건 풀들이 자라지 않는 건 노인이 재채기를 했기 때문이네 키케로의 노인 찬양은 사탕발림이야. 늙으면 너그러워진다고? 모두 체념이겠지. 지혜는 축적된 경험 땀에 풍부해진다 고? 현명하기보다는 이성은 오히려 둔화하고 쓸모 없어진 경험담을 경청할 사람이 없대네. 젊음의 불안은 그대로 존재해.

젊음의 여유로움은 줄어들고. 게다가 질병, 불구, 이별과 어떻게 죽는가를 걱정해야 되다네. 또 일생을 살면 후회로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 밀물처럼 덩벼드는 후회로운 일들. 그 위에 노인에 대한 굵지 않은 눈초리들. 일어날 일이라고는 죽음뿐인 노년은 젊은 시절 꿈꾸던 미래와는 거리가 먼데 이젠 어쩔 수도 없대네. 나라고 할만한 정체가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그리 즐거운 전망이 아니고. 자연의 장엄한 대순환이란 말은 도무지 위안이 안되지. 한 인간의 죽음 뒤에 하늘은 아무것도 슬프지 않고 바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네.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 봐야지. 투르게네프의 말을 따르리라. 무서운 시커멓게 다가오는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하잘것없는 일에 정신을 쏟으리라.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시간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열심히 할 일을 찾고 있는 거야.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 피곤할 때까지. 머릿속의 먼지 잡상이 청소될 때까지. 내게 달라 붙은 인간 조건을 떨쳐내려는 노력이야. 조금 더 지체해도 되겠어? 죽음을 자주 말하는 건, 죽음의 노래는 죽음으로부터의 도망이래네.

<전면에서 계속> 단순 범죄자들은 대개 그 영역을 빼놓고는 다른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범죄나 약물남용 이외에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며, 직장이나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몹시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를 잘 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순수한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약물치료가 별 소용이 없고, 정신 역동학적 개인 치료도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 동맹을 맺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개인 요법으로는 인지행동학적 심리요법이 효과가 있다는데, 이때 의사는 환자의 왜곡된 초차아와, 그로 인한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잘 듣는 치료방법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치료이다. 이러한 집단치료도 환자들 간에 서로 돕는 동료의식이나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치료의 목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약물중독 퇴치, 충동조절, 범죄 재발 방지 등 현실적인 점에 두어야 한다. 전두환 집권 시절 강패들(전두환 씨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기어오르는 놈들은 무조건 반사회적 인격 파탄자였기 때문에: 강패들은 탄 강패들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함)을 치료한다고 차렸던 삼청교육대 같은 강제 집단치료도, 제대로 운영하면 약 30% 정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혈기 방장한 청년기에 최고조를 발휘하다가, 불혹의 나이 40쯤 되면 30~40%에서 저절로 수그러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진이 빠져서 그냥 주위 환경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신 약물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평생 자살률 또한 5%에 이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까발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은 "범죄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좀도둑이 되고, 나라를 훔치면 영웅이 된다고 그랬다.

은행을 터는 사람들은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자기는 한 푼도 없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돈을 좀 나눠 가졌을 뿐이라 하고, 금융 사기를 쳐서 고액을 가로채는 CEO 들은 돈이란 어차피 들고 도는 것이니까, 능력 있는 놈이 나눠줘야 제대로 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하극상의 정정인 박정희 장군이 있는데, 그도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권력은 나눠주는 놈이 임자라는 도둑의 심보를 타고났으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와 다른 점은 그는 그것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고 낙인이 찍혀 감방을 왔다 갔다 하는 피라미들은 인격의 성장이 청춘기에 머무른 사람들이며, 재벌이나 영웅 호걸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더욱더 교활한 방어기전으로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면, 50보와 100보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저자가 왜 아까운 지면을 소비하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헛소리를 하나 하면,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대할 때, 그들은 아직도 인격의 발육이 실통치 않은 성장 "지체자"들이며, 그들을 치료할 때 그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끝-



春江花月夜

춘강 화월야, 봄강 꽃 달밤
張若虛(당대 시인 장약허)

번역: 정관호(63, 대뉴욕)

春江潮水連海平 춘강조수연해평하니	海上明月共潮生 해상명월공조생을	봄강 조수는 바다에 연하여 평평하니, 바다 위 밝은 달은 조수와 더불어 일어나네.
滌滌隨波千萬裡 염염수파천만리하니	何處春江無月明! 하처춘강무월명고	출렁이는 물결 따라 천만리를 가니, 어느 곳 봄강에 밝은 달이 없으리!
江流宛轉繞芳甸 강류완전요방전하니	月照花林皆似霰 월조화림개사산을	강 흐름은 원활하여 화초들을 둘러싸니, 달이 꽃 수풀 비추어 모두 싸락눈 같도다.
空裏流霜不覺飛 공리유산불각비하니	汀上白沙看不見 정상백사간불견을	공중에 서리가 날음을 깨닫지 못하고, 물가위 흰 모래는 보아도 보이지 않네.
江天一色無纖塵 강천일색무섬진하니	皎皎空中孤月輪 교교공중고월윤을	강과 하늘은 한 색으로 작은 먼지도 없으니, 휘영청 밝은 공중에 외로운 달 바퀴로다.
江畔何人初見月? 강반하인초견월가?	江月何年初照人? 강월하년초조인고?	강가에서 누가 처음으로 달을 보았는가? 강달은 어느해 사람을 처음 비추었는가?
人生代代無窮已 인생대대무궁이요	江月年年望相似 강월연년망상사를	인생은 대대로 끝이 없고, 강달은 해마다 서로 닮아 보이네.
不知江月待何人 부지강월대하인하니	但見長江送流水 단견장강송유수를	강달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으니, 오로지 긴 강이 흐르는 물 보냄을 보네.
白雲一片去悠悠 백운일편거유유하니	青楓浦上不勝愁 청풍포상불승수를	흰 구름 한 조각이 유유히 가버리니, 청풍포 위에 시름을 이길 수 없도다.
誰家今夜扁舟子? 수가금야편주자오?	何處相思明月樓? 하처상사명월루오?	누가 오늘 밤에 조각배를 탔고? 어느 곳에 상사의 명월루가 있는고?
可憐樓上月徘徊 가련누상월배회하니	應照離人妝鏡台 응조이인장경대를	가련타! 누각위에 달이 배회하러니, 응당 보낸 사람의 화장대를 비추리.
玉戶簾中卷不去 옥호염중권불거요	搗衣砧上拂還來 도의침상불환래를	옥 집 구슬 발을 거두고 떠나지 않고, 다듬이 옷 돌 위에 떨치고 돌아오네.
此時相望不相聞 차시상망불상문하니	願逐月華流照君 원축월화유조군을	이때 서로 바라보고 서로 듣지 못하니, 달빛 따라 가서 당신을 비추고 싶네.
鴻雁長飛光不度 홍안장비광부도요	魚龍潛躍水成文 어룡잠약수성문을	기러기 멀리 날아 빛도 이르지 못하고, 물고기와 용은 잠겼다 뛰어서 무늬 이루네.
昨夜閑潭夢落花 작야한담몽낙화하니	可憐春半不還家 가련춘반불환가를	어젯밤 조용한 못에서 낙화 꿈을 꾸었으니, 가련타! 봄이 반 가버려도 집에 오지 않네.
江水流春去欲盡 강수유춘거욕진하니	江潭落月復西斜 강담낙월부서사를	강물은 봄에 흘러 가버려 다하려 하고, 강 못에 떨어지는 달 다시 서편으로 기울네.
斜月沉沉藏海霧 사월침침장해무하니	碣石瀟湘無限路 갈석소상무한로를	기우는 달 침침하게 바다안개로 숨으려니, 갈석과 소상의 무한히 먼 길이로다.
不知乘月幾人歸 부지승월기인귀하니	落月搖情滿江樹 낙월요정만강수를	달 타고 몇사람이 돌아온지 모르니, 떨어지는 달 정 떨구어 강나무에 그득하네.

